

“곡성군청 방문 민원인 원터치면 직원 만나요”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방문객 편의 향상



곡성군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은 방문객이 찾고자 하는 부서와 업무내용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사 안내, 직원 좌석 배치도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곡성군청 현관 로비, 민원실 입구에 키오스크가 각각 1대씩, 각 부서와 회의실 입구에 터치형 모니터 19대가 설치됐

다. 기기를 통해 방문객들은 전체 부서의 위치와 층별 배치도, 직원 좌석배치 확인, 주요 행사 및 회의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인쇄된 형태의 안내판이 청사와 직원들을 개략적으로밖에 안내하지 못한 데 비해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부서별 직원들의 담당 업무, 사진, 전화번호, 재실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내부행정시스템과 연계해 각종 정보들이 개별적인 입력 작업 없이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함으로써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인 구현해 군민과 방문객이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희 기자

영광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실시

친환경인증사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본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오는 9월 2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 9월 3일 백수읍 복지회관에서 9시, 14시 각각 2회에 걸쳐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당일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9월 2-3일 사이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350-538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한창

‘백향과’ 체험활동 및 신 소득모델로 떠올라



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확대 조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백향과) 재배 시범단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뜨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활

동과 가공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산업화의 선진 모델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순천시가 최근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열대과수 작물 보급에 나서면서,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해 외서면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는 낙안면에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순천시는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0.5ha를 조성중이며 2020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1ha 조성을 목표로 낙안읍성 권역과 순천만권역의 국가정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생산, 판매, 체험문화 확산으로 6차산업화의 선진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백향과 성공을 시작으로 아열대작물에 관심있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열대작물이 신소득 창출과 함께 아열대과수 6차산업화의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 조기햇쌀단지 76농가 수확 시작



영산강 청정지역 담양의 대숲밭은 조기햇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26일 봉산면 삼지리 김덕수씨 농가의 햇쌀단지 0.3ha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대숲밭은 조기햇쌀 단지’ 76농가 58ha에 대해 본격적인 벼베기에 들어갔다.

대숲밭은 조기햇쌀단지에서 생산된 햇쌀은 금성농협 RPC에서 전량 산물

벼로 수매하여 소포장(4kg, 10kg) 단위로 가공해 전국 롯데슈퍼, 롯데마트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확한 품종은 전남(호(조명벼))의 조생종 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냉해에 강하고 밥맛이 매우 뛰어나 올해 410여 톤의 쌀을 생산 6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9월초까지 수확을 완료해 추석에도 대숲밭은 햇쌀이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양청, 선월하이파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경제자유구역 내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투기 방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청)이라 함)은 오는 9월 5일자로 만료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선월하이파크단지(0.98km)에 대해 2020년 9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내년 9월 4일까지 1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광양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청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갖춘 명품택지로 조성된다.

광양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여수시, 자동 전화 안내로 불법 광고물 근절

내달 1일부터 시행

여수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전화안내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20분마다 자

동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안내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며, 게시·배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안내 멘트를 보낸다.

시는 2개 조 10명으로 정비 단속반

을 꾸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와 전화번호 시스템 등록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 불편 감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상임용 및 저단형 게시대 추가 설치, 민·관 캠페인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청소년들, ‘언어폭력 없는 화순 만들기’ 캠페인

화순군 청소년들이 지난 24일 화순읍 광덕로 국민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언어폭력 없는 아름다운 명품 화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학생 35명이 참여한 캠페인은 청소년들과후아카데미의 토요체험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요체험은 전문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켈리그라피와 접목해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김원주 상담사)와 연계해 진행했다.

학생들은 ‘언어폭력 없는 청소년이

행복한 명품화순 만들기’를 주제로 관련 동영상 시청하고 조별 사례 발표, 켈리그라피 포스터와 표어를 직접 제작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직접 구상한 표어 문구도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서 벌인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캠페인은 참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민주 시민 역량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박 오 학생은 “포스터를 만들어 ‘욕

을 안하겠다’고 다짐하며 책임감도 느꼈다”며 “조별 토의를 하며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캠페인을 통해 욕설을 줄이고 바른말을 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육구에 맞게 예술·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토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